

최근 日本의 石油政策추이와 석유산업 현황

이 글은 지난 9월 21·22일 양일간 日本 東京에서 열렸던 제3회 한일석유정보협의회에서 日本측이 발표한 내용 및 질의응답과 公式會議일정 이외에 元賣會社등을 방문하여 입수한 자료를 간추린 것이다.

日本의 석유정책에 관련된 자료는 이미 국내에도 자세하게 알려져 있으나, 최근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배경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는 아니지만 부득이 다시 서술한 부분도 있다. 이 점을 미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 <필자 註>

具 翼 謨

<대한석유협회 기획차장>

I. 최근의 石油政策추이

1.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의 단계적 완화

현재 日本은 석유제품의 가격결정은 석유업계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나, 석유제품의 생산·판매활동은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은 앞으로 5년간에 걸쳐 석유산업에 대한 이러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합리적인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석유산업의 환경정비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精製設備허가제의 탄력적 운용-87년도 시행

중전까지 精製設備의 신·증설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금년 7월부터는 석유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日本은 현재

정제설비의 과잉으로 100만b/d 정도를 폐기해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이러한 申告制로의 전환은 당분간 宣言의 의미밖에 없을 것이다.

(2) 개별제품에 대한 生産指導의 폐지-88년까지 시행

현재 휘발유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生産指導를 88년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生産指導는 사실상 회사별 생산쿼터를 규제하는 것으로 석유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폐지되면 휘발유판매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 注油所 건설지도의 폐지-89년까지 시행

현재 Scrap & Build制(1개소 폐쇄시에 1개소 신설허가제)로 되어 있는 주유소의 건설지도를 오는 89년말까지 폐지함으로써, 주유소의 자유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4) 原油처리지도의 폐지-5년 이내 시행예정

위의 세가지 방안의 진척상황에 따라 앞으로 5년 이내에 精油會社에 대한 原油처리지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2. 石油安定공급 · 확보대책의 검토

日本은 87년 7월말 현재 138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석유비축의 계속적인 확충 및 긴급시 대응체제로서 安定性확보대책을 조속히 검토·수립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비축의 확충

88년까지 정부부문의 석유비축을 300만kl 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日本정부는 석유회사에 부담을 주는 민간비축을 줄이고, 대신 정부비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日本의 석유비축현황
(단위 : 1,000kl)

	민간비축	정부비축	합 계	
'86년말	물 량	50, 800	24, 030	73, 630
	일 수	97일분	42일분	139일분
'87년 7월말	물 량	50, 900	22, 830	73, 730
	일 수	95일분	43일분	138일분

(2) 긴급시 대응체제의 정비

石油의 수입, 생산, 판매, 流通 등 각 단계의 정보를 정비·

준비해 둌으로써 언제나 수급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의 재고를 항시 파악할 수 있는 공급시스템의 개발·도입도 추진중에 있다.

(3) 石油自主開發의 지속적인 추진

종전에는 석유개발회사가 精油會社와 협조관계 없이 석유개발에 참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精油會社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면서 석유개발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精油會社가 해외생산 油田을 구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지난 86년 日本의 자주개발원유 도입실적은 23,759천kl로써 日本의 총원유도입실적의 12.8%를 차지하였다.

3. 건설하고 유연한 石油産業의 육성

石油産業의 규제완화를 통해 市場 메커니즘을 활용함으로써 石油産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세계적인 潮流이며, 이에 따라 日本도 石油産業의 건설하고 유연한 存立基盤을 구축할 수 있도록 石油産業 자체의 활발한 경영노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과잉정제설비의 처리

지금까지 120만b/d의 정제시설을 감축, 금년 3월말 현재 日本의 정제능력은 4,761천b/d이다. 日本은 앞으로 2년내에 100만b/d 정도의 능력을 추가감축시킬 계획이다.

(2) 정제시설의 고도화

分解設備의 설치 등 정제시설의 고도화를 통해 석유제품의 수요구조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석유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原料油가 다양화됨에 따라 코스트절감도 기대되고 있다.

(3) 석유공급루트의 정보화추진

석유제품의 유통과 재고파악능력의 향상을 통해 공급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비상시에는 기동성있고 신속하게 석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各元賣會社의 공급루트에 대해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

(4) 元賣會社의 집약화

원래 元賣會社가 13개 기업에 달했으나 현재 7개 그룹으로 일단 집약화가 마무리된 상태이다. 그러나 기업합병,

共販會社 설립 또는 업무 제휴를 통해 집약화가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5) 流通部門의 합리화

휘발유 등의 유통부문은 과당경쟁으로 경영기반이 악화, 전제주유소의 거의 절반까지가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나, 영세성이 강하고 生業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주유소감축에 문제점이 많다. 그러나 中小企業近代化促進法の 시행에 따라 流通단계에서도 공동화·집약화를 통해 주유소수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4. 小委員會의 설치와 검토사항

지난 6월에 발표된 石油産業基本問題檢討委員會의 보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小委員會가 설치되어 해당 검토사항의 심의에 들어갔다.

(1) 석유비축문제 소위원회(87년 8월~11월 예정)

이미 설치되어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착수했다.

- ① 긴급시 국가비축 및 민간비축의 역할
- ② 국가비축 및 민간비축의 수준, 총비축량과 실태

(2) 경유유통문제 소위원회(87년 8월~11월 예정)

同소위원회도 기설치되어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 ① 경유의 유통실태 및 문제점의 파악
- ② 경유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한 방안의 검토

同소위원회의 설치배경을 살펴보면, 경유는 日本에서 가장 크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油種으로서 과거 10년간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앞으로 5년동안 연 2.6%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트럭 및 버스회사 등 대수요처를 둘러싼 石油會社간의 판매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따라서 판매가격도 천차만별이며, 특히 대수요처에 판매하는 가격은 주유소판매 가격보다 월등히 싸다. 실례로서 稅포함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리터당 75円 정도인데 반해 대수요처에 대한 판매가격은 50円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격심한 투매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同소위원회가 설치된 것이다.

(3) 긴급시대책 소위원회(87년 9월~88년 5월 예정)

지난 9월 21일 同소위원회가 처음으로 소집되어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 ① 긴급시 석유정보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 및 구체적인 정보네트워크의 실태
- ② 긴급시 비축석유의 방출방법

5. 石油稅制

(1) 石油稅의 종류 및 稅率

일본의 석유관련稅制는 原油단계와 제품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세율은 다음과 같다.

- ① 原油단계
 - 원유관세(종량세): 640円/kl(잠정세율로 88년3월까지 적용예정이며, 기본세율은 530円/kl임)
 - 석유세(중가세): 석유 = (CIF가격 + 관세) × 4.7%
 - LNG · LPG = (CIF가격 + 관세) × 1.
- ② 製品단계
 - 석유가스세(종량세): 9,800円/kl
 - 휘발유세(종량세): 53,800円/kl
(휘발유세 45,600円 + 지방도로세 8,200円)
 - 경유거래세(종량세): 24,300円/kl
 - 항공기연료세(종량세): 26,000円/kl

(2) 87년도 稅源別 稅收목표(예산)

日本의 87년도 총石油稅收예산은 3조2백4억円이며 稅源別 稅收목표액(예산)은 다음과 같다.

- ① 원유관세 : 1,227억円(4.1%)
- ② 석유세 : 1,900억円(6.3%)
- ③ 석유가스세 : 300억円(1.0%)
- ④ 휘발유세 : 20,178억円(66.8%)
- ⑤ 경유거래세 : 5,941억円(19.7%)
- ⑤ 항공기연료세 : 638억円(2.1%)
- 합계 : 30,204억円(100.0%)

(3) 87년도 용도별 지출예산

日本의 87년도 石油稅收를 재원으로 한 용도별 지출예산은 다음과 같다.

- ① 석탄대책 : 1,353억円(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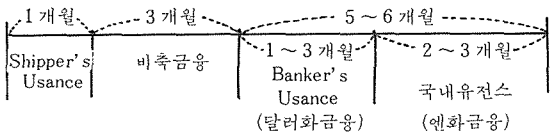
- ② 석유대책 : 3,293억円(10.2%)
- ③ 석유대책에너지 대책 : 422억円(1.3%)
- ④ 도로정비 : 26,439억円(82.3%)
- ⑤ 공항등정비 : 638억円(2.0%)
- 합계 : 32,145억円(100.0%)

(4) 87년도 稅收부족대책

85년말부터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日本은 6개 石油稅目 가운데 유일하게 從價稅로 되어 있는 石油稅의 징수액이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86년부터 稅收부족을 겪게 되었다. 다행히 86년에는 전년도 石油計定の 잔액을 사용, 石油稅收의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었으나, 87년도에는 전년도 잔액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增稅를 통해 부족액을 메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6. 精油業界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일본의 석유회사들은 原油수입시에 국제적으로 관례화 되어 있는 1개월간의 Shipper's Usance 외에 통상 8~9개월의 은행금융을 사용하고 있다.



그 내역을 보면, 石油會社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90일분의 석유비축에 대한 금융지원이 3개월, 달러貨로 차입하는 Banker's Usance가 1~3개월,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円貨금융이 2~3개월이다. 특히 Banker's Usance와 국내금융은 5~6개월의 범위내에서 이자율의 추이에 따라 사용기간이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즉 국제금리가 국내금리보다 싸면 Banker's Usance의 사용기간이 길어지고, 국내금리가 싸면 円貨금융사용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전에는 Banker's Usance의 기간이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최장 3개월이었으나, 지난 80년 12월 同法개정시 相關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없고 통상적으로 1~3개월간 Banker's Usance를 사용하고 있다.

기타 石油會社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은 없으나, 파이프정제시설의 폐기나 용도전환시에는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다.

7. 国内 石油製品가격 결정방법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자유시장경쟁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일부 석유제품은 정부 또는 업체 스스로 정한 公式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1) 나프타가격

나프타가격은 정부가 정한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 수입나프타가격 : CIF가격 + 제경비
- 국내생산나프타가격 : 수입나프타가격 + 2000円/kl

(2) B-C油가격

B-C油가격은 정부의 간섭 없이 업계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 B-C油가격 : 前分期 原油의 평균 CIF가격 + 제경비
- 고유황B-C油 : 中東原油의 CIF가격 + 제경비
- 저유황B-C油 : 인도네시아原油의 CIF가격 + 제경비

(3) 등유가격

다른 제품과 달리 등유는 日本의 최대소비지인 北海道의 「生活協同組合」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5년의 경우 北海道의 등유소비는 전국등유소비의 12%를 차지하였으며, 반면 휘발유소비는 4.3%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가구당 보유량도에 있어서도, 東京에서는 한 가정에서 90 l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나, 北海道에서는 500 l까지 보유할 수 있다.

(4) 제트油가격

제트유가격은 입찰에 의해 결정된다.

II. 石油製品의 수급전망

1. 수요전망

日本의 87년도 석유수요는 GNP성장률과 IIP(공업생산지수) 성장률을 각각 3.5%와 2.2%로 전제하였을 때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86~91년기간 동안에는 연평균 0.5%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油種別로 보면, 수송연료만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87년도의 경우 휘발유 1.0%, 제트

〈表-1〉 日本의 석유수급전망

(단위 : 천kℓ, 단LPG는 천톤)

		실 적				전 망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회발유	自動車용	35,802	35,775	36,508	37,546	37,929	38,312	38,697	39,086	39,479
	기타	265	271	204	193	187	185	185	185	185
	소계	36,067	36,046	36,712	37,739	38,116	38,497	38,882	39,271	39,664
나프타	石油化學用	21,780	22,938	23,594	24,631	24,046	23,745	23,436	23,202	23,177
	가스·肥料用	1,570	903	672	857	708	725	743	761	762
	電力用	487	355	348	402	242	200	200	200	200
	소계	23,837	24,196	24,614	25,890	24,996	24,670	24,379	24,163	24,139
켓트	油	2,810	2,835	3,056	3,167	3,189	3,258	3,324	3,387	3,449
	燈油	25,496	24,562	25,308	25,134	25,196	25,317	25,423	25,517	25,600
輕	油	23,838	24,775	25,808	27,440	28,346	29,083	29,810	30,525	31,258
경질	중유	20,114	20,009	20,315	20,714	20,106	20,046	19,950	19,866	19,790
중	유	2,473	2,234	2,110	1,810	1,686	1,612	1,558	1,498	1,458
B-C	油									
	電力用	29,860	26,250	20,621	19,159	17,382	18,225	18,731	16,781	14,289
	기타	26,470	25,514	22,402	22,332	20,747	20,419	20,005	19,574	19,091
	소계	56,330	51,764	43,023	41,491	38,129	38,644	38,736	36,355	33,380
重	油計	78,917	74,007	65,448	64,015	59,921	60,302	60,244	57,719	54,628
燃	料油計	190,965	186,421	180,946	183,385	179,764	181,127	182,062	180,582	178,738
L	P G	14,566	25,442	15,806	15,989	16,337	16,629	16,953	17,522	17,780

油 0.7%, 경유 3.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정용 연료인 등유는 담보상태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나프타, 경질중유, 중유, B-C油는 계속 수요가 감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日本은 경질유의 수요비중이 높아 86년도에 나프타를 제외하고도 경질제품의 비중이 62.3%였으나, 앞으로 수요의 輕質化가 계속되어 91년에는 그 비중이 67.1%로 높아질 전망이다.

〈表-2〉 日本의 석유제품수요 증가율 및 구성비

(단위 : %)

		증 가 율						연평균증가율		구 성 비		
		'86/85	'87/86	'88/87	'89/88	'90/89	'91/90	'86/81	'91/86	1981	1986	1991
회발유	自動車用	102.8	101.0	101.0	101.0	101.0	101.0	1.4	1.0	18.0	20.5	22.1
	기타	94.6	96.9	98.9	100.0	100.0	100.0	▲ 6.5	▲ 0.8	0.1	0.1	0.1
	소계	102.8	101.0	101.0	101.0	101.0	101.0	1.4	1.0	18.1	20.6	22.2
나프타	石油化學用	104.4	97.6	98.7	98.7	99.0	99.9	3.9	▲ 1.2	10.5	13.4	13.0
	가스·肥料用	127.5	82.6	102.4	102.5	102.4	100.1	▲ 12.9	▲ 2.3	0.9	0.5	0.4
	電力用	115.5	60.2	82.6	100.0	100.0	100.0	▲ 16.4	▲ 13.0	0.5	0.2	0.1
	소계	105.2	96.5	98.7	98.8	99.1	99.9	2.3	▲ 1.4	11.9	14.1	13.5
켓트	油	103.6	100.7	102.2	102.0	101.9	101.8	2.1	1.7	1.5	1.7	1.9

燈	油	99.3	100.2	100.5	100.4	100.4	100.3	1.2	0.4	12.2	13.7	14.3
輕	油	106.3	103.3	102.6	102.5	102.4	102.4	4.7	2.6	11.2	15.0	17.5
경	질 중	102.0	97.1	99.7	99.5	99.6	99.6	0.6	▲ 0.9	10.4	11.3	11.1
중	유	85.8	93.1	95.6	96.7	96.1	97.3	▲14.4	▲ 4.2	2.0	1.0	0.8
B	- C											
電	力 用	92.9	90.7	104.8	102.8	89.6	85.1	▲11.3	▲ 5.7	17.9	10.4	8.0
기	타	99.7	92.9	98.4	98.0	97.8	97.5	▲ 5.1	▲ 3.1	14.9	12.2	10.7
소	계	96.4	91.9	101.4	100.2	93.9	91.8	▲ 8.3	▲ 4.3	32.8	22.6	18.7
重	油 計	97.8	93.6	100.6	99.9	95.8	94.6	▲ 6.1	▲ 3.1	45.2	34.9	30.6
燃	料 油 計	101.3	98.0	100.8	100.5	99.2	99.0	▲ 1.2	▲ 0.5	100.0	100.0	100.0
L	P G	101.2	102.2	101.8	101.9	103.4	101.5	1.4	2.1	-	-	-

특히 휘발유와 B-C油의 87년도 수요는 각각 38,116천kl와 38,129kl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日本은 지난 86년 12월 10일부터 석유제품의 일반수출을 허용하였다. 허용 첫해인 86회계년도에는 휘발유 40천kl를 수출하였으며, 87년도에는 80천kl를 수출할 계획이다.

〈表 - 3〉 保稅 (Bond) B - C油 수출수요

(단위 : 천kl)

	수 요	국내생산	보세수입
1980	9,009	8,026	983
1986	5,952	663	5,289
1987	6,050	710	5,340

2. 석유공급계획

87년도 日本의 석유공급량은 181,979천kl로 전년보다 2.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공급량중 82.6%인 150,399천kl가 국내생산분이며, 나머지 17.4% 31,580kl가 輸入量이다.

특정제품의 수입허용에 따라 수입되고 있는 휘발유, 등유, 경유는 86년 수입실적이 급증하여, 휘발유는 국내소비의 9.7%를 차지했으며, 등유와 경유도 각각 12.6%와 4.4%를 차지했다. 이러한 급격한 수입의 증가는 日本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을 배려한 결과이며, 87년부터는 국내수요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품수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表 - 4〉 日本의 석유제품공급계획

(단위 : 천kl)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原油处理量 (천b/d)		193,701 (3,328.9)	188,676 (3,251.4)	179,625 (3,095.5)	167,610 (2,888.4)	164,839 (2,832.9)	168,129 (2,897.3)	169,041 (2,913.1)	167,593 (2,888.1)	165,799 (2,849.4)
생 산 량	揮發油	35,800	36,381	36,080	34,273	34,456	34,847	35,202	35,551	35,904
	나프타	11,608	11,103	10,801	9,000	7,906	7,980	7,659	7,703	7,979
	젯트유	4,059	4,027	4,264	4,198	4,284	4,458	4,524	4,587	4,649
	燈油	25,139	25,495	24,850	22,663	21,686	22,127	22,213	22,297	22,370
	輕油	23,597	24,869	25,769	26,196	27,106	27,863	28,560	29,235	29,938
	경질중유	18,634	18,873	19,189	19,367	18,621	18,926	18,830	18,746	18,670
	중유	2,402	2,169	2,010	1,718	1,711	1,612	1,558	1,498	1,458
	B - C油	54,336	48,760	39,056	36,302	34,629	34,344	34,436	32,055	29,080
	重油計	75,372	69,802	60,255	57,387	54,961	54,882	54,824	52,299	49,208
計	175,575	171,677	162,019	153,717	150,399	152,157	152,982	151,672	150,048	

수 입 량	揮發油	-	-	530	3,653	3,690	3,730	3,760	3,800	3,840
	나프타	13,797	14,007	14,761	17,458	16,460	16,690	16,720	16,460	16,160
	제트油	467	24	-	-	-	-	-	-	-
	燈油	-	-	1,010	3,172	3,180	3,190	3,210	3,220	3,230
	輕油	-	-	238	1,209	1,250	1,280	1,310	1,350	1,380
	경질중유	1,609	1,775	1,861	1,718	2,000	2,000	2,000	2,000	2,000
	중유	-	-	-	-	-	-	-	-	-
	B-C油	5,640	5,437	5,779	4,973	5,000	5,000	5,000	5,000	5,000
	重油計	7,249	7,212	7,640	6,691	7,000	7,000	7,000	7,000	7,000
	計	21,513	21,243	24,179	32,183	31,580	31,890	32,000	31,830	31,610
合計	197,088	192,920	186,198	185,900	181,979	184,047	184,982	183,502	181,658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5개년석유공급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석유제품수입량은 86년도 실적을 밑돌고 있다.

(表-6) '86년도 특정제품 수입실적

(단위 : 천kl)

	수입계획	실적	국내수요 구성비
휘발유	2,050	3,653	9.7%
등유	1,000	3,172	12.6%
경유	400	1,209	4.4%

= 판매가격이 되어야 하나, 실제적으로는 판매가격 - 제조원가 = 나머지가 이익이 되는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이 격심한 판매경쟁하에서 元賣會社들은 코스트 절감을 위해 유통합리화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석유회사의 優劣이 유통합리화(원가절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2) 수송능력

出光興産은 해운회사 1개사만 소유하고 있을 뿐, 모든 海上 및 陸上수송수단은 수송회사와 수송계약을 체결, 사용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고, 수송비는 매월 일정액의 固定費와 실제수송물량에 의한 變動費(실제운임)로 구분·지불하고 있다.

日本の 석유회사들도 전에는 많은 수송수단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으나, 근년에 들어서는 수송비의 절감을 위해 극히 일부 수송수단을 제외하고는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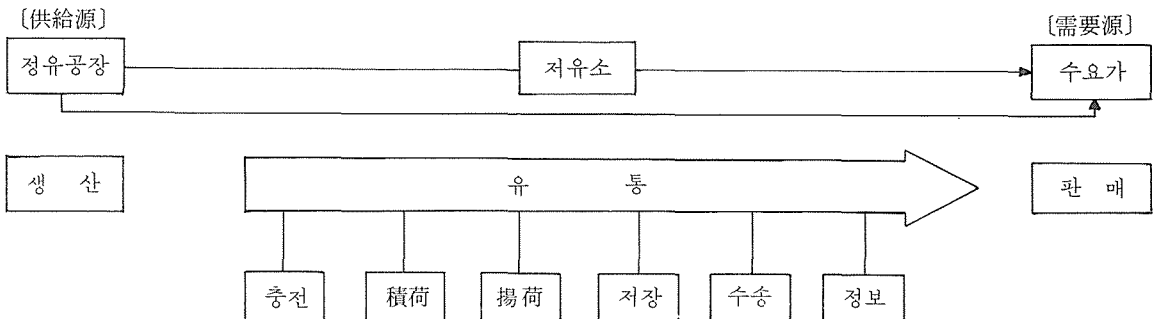
Ⅲ. 石油製品의 유통부문 현황

1. 元賣會社(出光興産)의 物流개요

(1) 物流의 중요성

현재 日本은 석유제품의 판매경쟁이 격심해 석유회사의 수익성이 악화일로에 있다. 정상적으로는 제조원가 + 이익

(그림-1) 出光興産의 物流개요



〈表-7〉 出光興産의 수송능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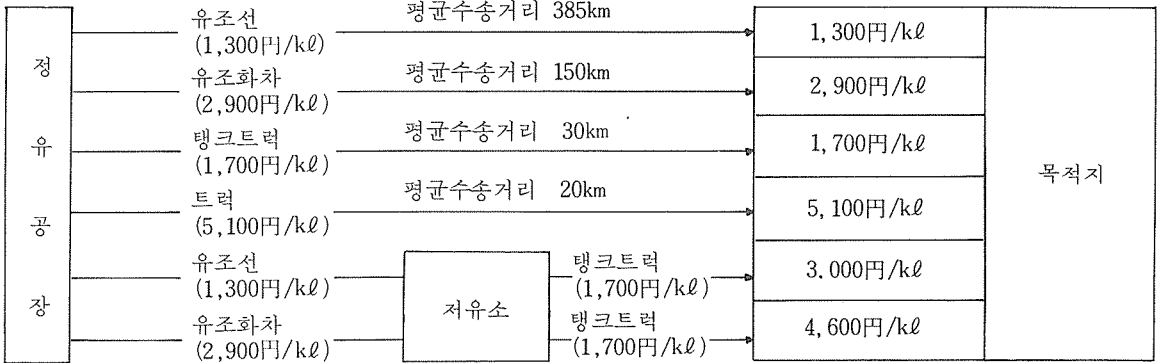
○유조선	122척	285,800kℓ (89.6%)
○유조화차	300량	9,000kℓ (2.8%)
○탱크트럭	2,040대	23,600kℓ (7.4%)
○트럭(윤활유)	130대	700kℓ (0.2%)
합		319,000kℓ (100.0%)

(3) 수송형태별 운임

〈표-8〉에는 出光興産의 수송수단별 평균 수송거리와 평균운임이 나와 있다. 油槽船의 경우 평균수송거리가 385km로 가장 멀면서, 운임은 kℓ당 1,300円으로 가장 저렴하다. 트럭의 경우는 평균수송 거리가 20km밖에 되지 않으나, 운임은 kℓ당 5,100円으로 가장 비싸다.

〈表-8〉 出光興産의 수송형태별 운임

(목적지까지의 운임)



(4) 수송수단별 수송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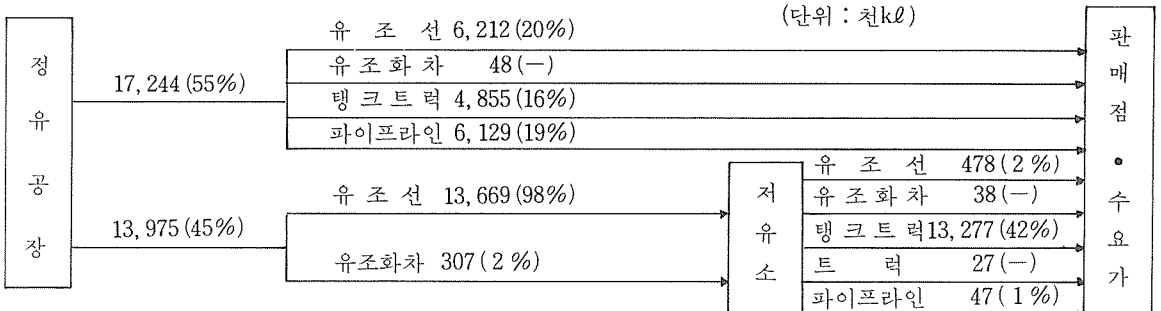
出光興産의 86년도 수송수단별 수송실적은 〈表-9〉와 같다. 정유공장의 출하량 가운데 45%는 貯油所를 경유하였고, 55%는 직접 판매점이나 수요처에 수송되었다.

(5) 수송비절감노력

出光興産은 수송수단의 최적 組合을 통하여 목적지까지의 수송비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저유소를 90개에서 46개로 줄였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인력은 퇴직시키지 않고 다른 사업에 투입하였다.

〈表-9〉 '86년도 석유제품 수송실적

(단위 : 천kℓ)



(6) 注油所에 대한 지원

同社의 주유소에 대한 외상판매기간은 45일정도이며, 외상기간이 지난 후 일부잔액에 대해서는 월부상환도 허용하고 있다.

주유소부지 소유자가 주유소를 신축할 경우 건설비를 융자해 주기도 한다.

기타 판촉물은 自社에서 제작한 것을 제공하거나, 제작비를 직접 지원해 주기도 한다.

2. 석유제품의 유통부문현황

(1) 특약점 및 주유소현황

87년 3월말 현재 日本의 총주유소수는 54,490개소이며, 이중 元賣會社 직영주유소는 7,302, 자영주유소는 29,767개소이다. 韓國의 대리점에 해당하는 特約店수는 8,623, 특약점 직영주유소는 24,723개에 달하고 있다.

〈表-10〉 日本의 特約店 및 주유소현황

고정식주유소	이동식주유소	원매회사 직영주유소	특약점수	특약점 직영주유소	자영사업자수	자영주유소
54,490	3,226	7,302	8,623	24,723	23,566	29,767

〈註〉*元売會社 계열기준임 *元売會社 직영주유소는 고정식 주유소 합계에 포함되어 있음.
*특약점 직영 및 자영주유소는 고정식 주유소만의 숫자 *농협주유소는 자영주유소에 포함됨

(2) 특약점 및 주유소수 변동추이

석유제품의 수요감퇴와 판매경쟁의 격화로 주유소의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주유소는 84년도부터, 특약점은 82년도부터 소폭적이거나 감소하고 있다.

日本은 현재 주유소의 자유경쟁을 포함한 유통부문의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적자주유소가 도태됨에 따라 주유소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表-13〉 주유소의 휘발유판매수의 추이

(단위 : 円/ℓ)

	'82년3월	'83년3월	'84년3월	'85년3월	'86년3월	'87년3월
총 이익	14.4	13.0	10.1	10.9	10.7	12.2

〈表-14〉 赤字주유소의 변동추이

(단위 : %)

	1981말	1982말	1983말	1984말	1985말	1986말
비율	42.3	44.0	49.6	48.8	48.3	36.1

〈表-11〉 연도별 특약점 및 주유소수 변동추이

	1981말	1982말	1983말	1984말	1985말	1986말
주유소수	59,272	59,307	59,329	59,324	59,082	58,729
특약점수	36,010	35,680	35,452	35,160	34,693	34,217

〈註〉주유소수는 고정식과 이동식의 합계임.
〈자료〉日本通産省 휘발유 판매업법에 의거 집계한 숫자임.

주유소수가 감소하고 휘발유소비는 소폭적으로 증가하는데 힘입어 주유소당 휘발유판매량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表-12〉 주유소당 휘발유 판매량추이

(단위 : kl/월)

	1981말	1982말	1983말	1984말	1985말	1986말
월간평균 판매량	49.9	50.3	51.4	51.9	54.1	55.5

아울러 주유소당 판매수익도 87년에 접어들어 호전되고 있다. 85년에는 총주유소의 거의 절반인 48.3%가 赤字를 기록했으나, 86년에는 赤字주유소의 비율이 36.1%로 대폭 낮아졌다.

(3) 元賣會社와 特約店과의 관계

元賣會社は 주유소를 직접 소유하고 있으며, 특약점은 소유하고 있지 않다. 단지 특약점과 제품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들의 판매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뿐이다.

系列주유소가 현재공급자(元賣會社)를 바꾸고자 할 경우 신규공급예정자(元賣會社)는 이 사실을 계약만료 1개월 전에 현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경우에 주유소 또는 신규공급자는 현공급자에게 移籍料를 지불해야 한다.☐